

우리의 언약 (Our Covenant)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의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문화들의 사람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와 개혁신학과 교회 운영에 있어 복음주의적 및 전통적 이해를 가진 우리들은 이 캐나다 장로교회의 분수령이 될 순간에 와 있습니다. 총회가 중대한 사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네 가지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 **DÉTENTE** : stay and pray (머물며 기도하기) – 캐나다 장로교단에 남아 성령님께서 변화와 부흥을 가져 오시길 위해 기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에서 드러난 진리에 맞추어 우리의 기초와 운영을 변화시켜 가는 길.
2. **DETACH** : 캐나다 장로교단에 남지만, 연금, 보험 및 모기지나 대출과 같은 문제 등 행정적 부분에서만 관계를 갖는 길. 교단 내 회의들에 참여하지만, 리소스 및 선교에서는 교단이 아닌 자교회가 원하는 바를 지원한다. “Detaching” 은 다양한 방식과 결과를 가질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교회들은 기도와 대화를 필요로 한다. “Detach”가 어떤 모습이 되건, 이 언약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3. **DEPART**: 캐나다 장로교단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교단 혹은 다른 교단에 참여하는 길. 책임 있게 떠나기 위해서 행정적 부분과 합리적이고 덕이 되는 자세로 재정적 부분들을 고려한다.
4. **DISCERN**: 다음 선택에 대하여 더 많은 기도와 분별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를 가진 말씀에 따라 행하고 말하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따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38-48)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21-25)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13-15,22-26)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며, 삶과 신앙 모든 부분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신념과 겸손, 신뢰, 은혜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이는 다음을 뜻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가 쓰는 글, 인터넷상 글, 설교와 가르침 모두에서 우리의 말을 주의하여 항상 격려하고 덕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르게 믿는 자들을 놀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은혜롭게 또 잠잠한 확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2. 캐나다 장로교단과 우리 자교회와 노회 및 Synods 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특히 캐나다 장로교단 내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을 대할 때 진실과

존중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옳음과 관대함으로 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3. 우리는 캐나다 장로교단 내에서 우리를 적대하거나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동, 태도 및 말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자든, 다른 길을 택한 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협박, 강압 및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데 서로 책임을 갖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세주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맺히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